

'5·18특별법 위헌' 김용준 역사관 철저 검증

민주 "쿠데타·학살범죄 중대성 경시...사과해야"

민주당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5·18 특별법 위헌 의견 제시 논란과 관련, 철저한 '역사관' 검증에 나서겠다고 버리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5·18 특별법 위헌 의견에 대해 최소한의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의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5·18 특별법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냈다"며 "이는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적절한 역사관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문제가 마무리되면 민주당 차원에서 김 후보자의 역사관 문제에 대해 집중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비대위 사무총장인 김영록 의원은 "총리는 국민과 시대와 소통하며 멋진 부분을 풀어줘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김 후보자의 보수 편향적 관결과 관련한 역사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김 후보자가 법관으로서 자신이 내린 판결에 대한 나름대로의 소신이 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총리 후보자로서 시대적 아픔이 담긴 판결에 대해 과감하게 유감이나 사과를 표명하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현재소장으로 재임 중이던 지난 1996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처벌을 위한 5·18 특별법에

대해 위헌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김 후보자는 "헌정질서 파괴를 처벌함으로써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려는 의지도 우리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법치주의 또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형법불소급의 원칙 정신에 비추어 헌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즉, 공소 시효를 넘겨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주요 요지로 법리적으로는 일리가 있지만 명백히 위헌인 쿠데타나 광주 학살 범죄의 중대성을 경시한 판단이라는 논란을 낳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새누리당의 첫 연석회의에서 김용준 인수위원장 겸 국무총리 후보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70~80년대 수도권 땅 집중 매입 '투기 의혹'

청문회 쟁점화 김용준 총리 후보 재산 내역은 장남·차남·아내 명의로 대거 사들여 1993년 대법판때 재산 신고액 30억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문제가 국회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그의 부동산 내역과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대법판때인 1993년, 본인 명의로 된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 아파트를 비롯해 배우자와 장·차남 명의 재산까지 모두 29억 8883만8000원을 신고했다.

주요 재산 내역을 보면, 김 후보자는 부장판사 시절이던 1975년 12월 30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임야 1만 7355㎡를 사들인 데 이어 1978년 3월 3일에는 잡종지로 분류된 인천시 북구 북성동 대지 232.7㎡를 매입했다. 대법판 취임 이후인 1988년 9월에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임야 520㎡ 중 173.34㎡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했다. 앞서 같은 해 3월에는 167.08㎡(55평형)짜리 서빙고동 신동아 아파트

를 매입, 이후 전세를 쳤다. 이 아파트는 1993년 당시 시세가 3억 7500만원이었으나 지금은 저층 매매가가 13억원대에 이른다. 이 아파트는 2006년 4월 25일 장남 김현중(45)씨에게 증여했다. 김 후보자의 아내는 1974년 12월 30일 서울 강동구 마천동 대지 1757㎡ 중 878.5㎡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했다.

장남 현중씨는 7세 때인 1974년 6월 25일 경기 안성군 삼죽면 배대리 임야 7만3388㎡를 취득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지 중 451㎡에는 1996년 철탑과 송선전 건설로 한국전력에 지상권이 설정됐다. 당시 29세이던 김씨에게 한전이 지급한 토지이용료는 4400만원이다. 현

중씨와 차남 범중(43)씨는 각각 8세와 6세 때인 1975년 8월 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지 674㎡를 공동 명의로 취득하기도 했다.

현재 장·차남이 공동 소유한 서초동 부지의 평당 매매가가 2500만원 선이어서 시세는 5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김 후보자 일가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개발이 한창이던 1970~1980년대 집중적으로 토지 등을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개발이익을 노린 땅 투기를 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장·차남이 10세도 안 된 나이에 막대한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점에서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냈는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 당선인 "특사, 권한남용·국민 뜻 거스르는 것"

북핵문제 포함 정면돌파 시도할 듯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설 특별사면과 북핵문제 등에 대해 강경한 대응으로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들 문제는 박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직접 보여주는 것임은 물론 새정부에 대한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사안인 만큼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당선인은 우선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 특별사면 강행 방침에 대해 28일에도 거듭 강한 반대 메시지를 던졌다. 지난 26일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을 통해 강한 반대 입장을 이은 두 번째 메시지다.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당선인의 생각"이라고 분명히 밝힌 뒤 "임기 말 특사에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고, 특히 국민 정서에 반하는 비리사법과 부정부패자에 대한 특별사면에 우려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사면이 강행되

면 이는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의 남용이고, 국민 뜻을 거스르는 것"이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 당선인이 특사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 대통령이 이를 강행하려 하자 다시 한번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조 대변인도 발인 배경에 대해 "계속 언론보도가 그렇게 되니까 본인이 다시 한번 그런 우려를 말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선거 기간 사면권 제한을 약속했음에도 직전 정부의 정치 행위 때문에 집권 초기부터 '신뢰와 원칙'이라는 자신의 정치적 자산이 국민에 의해 의심받은 상황을 조래할 수 없다는 것이 박 당선인의 생각이라고 측근들이 전했다.

물론 이 같은 박 당선인의 입장이 실제로 특사 불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여전히 청와대 내에서는 특사 설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때문에 야당에서는 "이 대통령은

측근사면이란 실리를 안고 박 당선인은 셀프사면을 반대했다는 명분을 얻는 것" "짜고치는 '밀당'(밀고당기기) 일 뿐" 등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박 당선인의 정면 돌파 의지는 북핵 문제에서도 드러난다.

한 측근은 "북핵 문제가 결국 당선인의 가장 큰 숙제다. 여기에서 리더십을 테스트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문제에 대한 강한 인상을 심어 줄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이날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이 김무성 중국 특사의 방중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비핵화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가 한반도 평화 안정에 필수 조건이라는 것이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소개한 것에 대해 북한의 대외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국 최고 지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핵 불용'이라는 자신의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정부 화두 '칸막이 허물기'

박 당선인, 중기 지원·복지 정책 등서 연일 강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연일 부처간 '칸막이 허물기'를 강조하면서 새정부에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2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개한 경제1, 2분과와 고용복지분과의 '국정과제 토론회' 회의록에 따르면 박 당선인은 여러 현안과 관련해 부처별 칸막이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요지는 예산 낭비를 줄이면서 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칸막

이식 지원을 탈피해야 한다는 것. 대표적인 사례로 박 당선인은 지난 27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들었다. 박 당선인은 "중양부처 간에, 또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간에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며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에 대해 연간 1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막상 중소기업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은 별로 없었다는 취지다.

이날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당선인의 생각"이라고 분명히 밝힌 뒤 "임기 말 특사에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고, 특히 국민 정서에 반하는 비리사법과 부정부패자에 대한 특별사면에 우려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사면이 강행되

그는 이어 "다양한 게 어떻게 풀이 가고 있고, 어떤 기관에서 뭐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볼 때 중복 안 되고 사각지대 없이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지원을 주관하는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을 비롯해 각종 규제·지원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고용노동부·환경부·금융위원회·교육과학기술부가 따로 논다는 얘기가.

이날 고용복지분과 토론회에서도 박 당선인은 칸막이 해소를 거론했다. 그는 자신이 임박해 전 발효된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 틀이 '복지와 고용을 연계하고, 또 복지에서 칸막이를 해소하고, 복지에 대한 기본 계획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통합진보 비대위, 새 대표로 이정희 추대

통합진보당 비상대책위는 28일 오전 회의를 열어 새 대표로 이정희 전 공동대표를 추대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다음달 18~22일 당원을 상대로 실시하는 동시당직선거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으면 대표로 최종 확정된다.

강병기 비대위원장은 이날 "박근혜 정권이 등장하면 그동안 진행됐던 통합진보당에 대한 탄압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런 조건에서 이전 대표를 당대표로 모시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음달 치러지는 동시당직선거의 후보 등록 첫날인 이날 당 지도부가 합의추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 전 대표는 당 대표 후보로 사실상 단독 출마하게 됐다.

통합진보당 당헌당규 상 당 대표는 선거권을 가진 당원 과반수 투표 참여에 유효투표자의 과반수 득표자가

선출된다. 그러나 지난 10일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투표를 과반 규정을 이번 선거에 한해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세부 선거 규칙을 비대위에 위임하기로 함에 따라 이번 대표선거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찬반투표 형식으로 치러지게 된다.

2011년 말 출범한 통합진보당의 초대 공동대표를 맡았던 이 전 대표가 이번이 대표가 되면 4·11 총선에서의 비례대표 경선 부정 의혹과 중앙위 폭력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난 지 9개월여 만에 다시 당 대표로 복귀하게 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公認 漢字·漢文指導師資格
※ 教育部 科學技術部 國家公認 研修生 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 (16기)	광주교육대학교 (7기)
개강일시	·금요일 오전반 2013.3.8. (금) 09:10 (특급반) ·토요일 오전반 2013.3.9. (토) 09:10 (중급반)	·월, 목 야간반 2013.3.4. (월) 19:00 (초급반) ·목요일 오전반 2013.3.7. (목) 09:10 (중급반) ·토요일 오후반 2013.3.9. (토) 14:10 (특급반)
모집기간	2013.1.24. (목) ~ 3.9. (토)	2013.1.24. (목) ~ 3.9. (토)
수업기간	2013.3.8. (금) ~ 2013.8.17. (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3.3.4. (월) ~ 2013.8.17. (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매주 금·토요일 오전반 09:10-13:00	·매주 목요일 오전반 09:10-13:00 ·토요일 오후반 14:10-18:00 ·월·목요일 야간반 19:00-21:00
수강료	₩350,000 (예금주: 광주여대) ·광주은행: 148-107-307803	₩350,000 (예금주: 광주교대) ·우체국: 503557-01-005018
수료후 특전	·1, 2단계 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 부여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 (방과 후 교육) 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법) 취득기회 부여	·1, 2단계 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 부여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 (방과 후 교육) 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법) 취득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 062) 950-3582-4 ·지도교수: 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문 의: 062) 520-4243 ·지도교수: 010-3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ac.kr

KTFC (사) 한국맛음식연구원
Sthe1 요리학원

푸드코디네이터 자격증반 & 김치 대회반 · 자격증반 & 아동요리 자격증반 & 펍백 자격증반 모집

푸드코디네이터 자격증반
교육일정 | 매주 토요일 PM2:00~PM4:00(12주)
교육과목 | 식재료지식, 푸드컬러, 꽃꽂이, 와인, 테이블매너, 푸드스타일링, 테이블 세팅

푸드코디네이터의 활동범위
푸드스타일링리스트, 파티플래너, 테이블장식사, 레스토랑컨설턴트, TV무빙호스트, 푸드라이터 등

김치 대회반 · 자격증반
교육일정 | 매주 화요일 PM1:00~PM3:00(12주)
교육과목 | 김치 이론, 김치기 살음, 김치류 특전 요리, 김치 스타일링

아동요리지도사의 활동범위
김치 전분가, 문화센터 · 평생교육원 강사, 푸업, 창업

아동요리지도사 자격증반
교육일정 | 매주 토요일 AM10:00~PM12:00(12주)
교육과목 | 아동요리론, 아동요리지도서론, 아동요리와 음악·아동요리의 이해와 실제, 아동요리 시연

아동요리지도사의 활동범위
방과후 아동요리지도사, 유치원 · 문화센터 · 평생교육원 아동요리지도사 등

펍백 · 이바지사 자격증반
교육일정 | 매주 화, 목요일 AM10:00~PM12:00(12주)
교육내용 | 오징어요리, 꽃강아지, 콩나물, 정과류, 쌀강정, 쌀엿, 대추말, 육포, 구절반, 찬살부꾸미

펍백 · 이바지사의 활동범위
푸드스타일링리스트, 파티플래너, 테이블장식사, 레스토랑컨설턴트, TV무빙호스트, 푸드라이터 등

푸드코디네이터 명인1호 · 김치소믈리에 명인2호
2012 대한민국 신지식인 교육부분 대상 수상 "이성의 원장"

조리사자격증반 한식 · 양식 · 일식 · 중식 · 북어 수시개강 (주간 · 야간)
생활요리반 & 특수아동요리반 수시개강 (주간 · 야간)

Sthe1 요리학원 문의 전화 062) 385-0723
금호파출소 건너편

목도연빌딩 임대

※ 옥탑 광고 임대 ※

⇒ 2호 광장 5거리 코너, 6층 건물
⇒ 엘리베이터 2대
⇒ 건물상태 최상
⇒ 임대료/관리비 저렴
⇒ 문의 : H.010-3605-5000

▶ 면적 : 각층 110평, 전체/분할임대 가능
▶ 용도 : 병/의원, 요양병원, 약국, 금융기관, 사무실, 교회, 헬스장, 등등